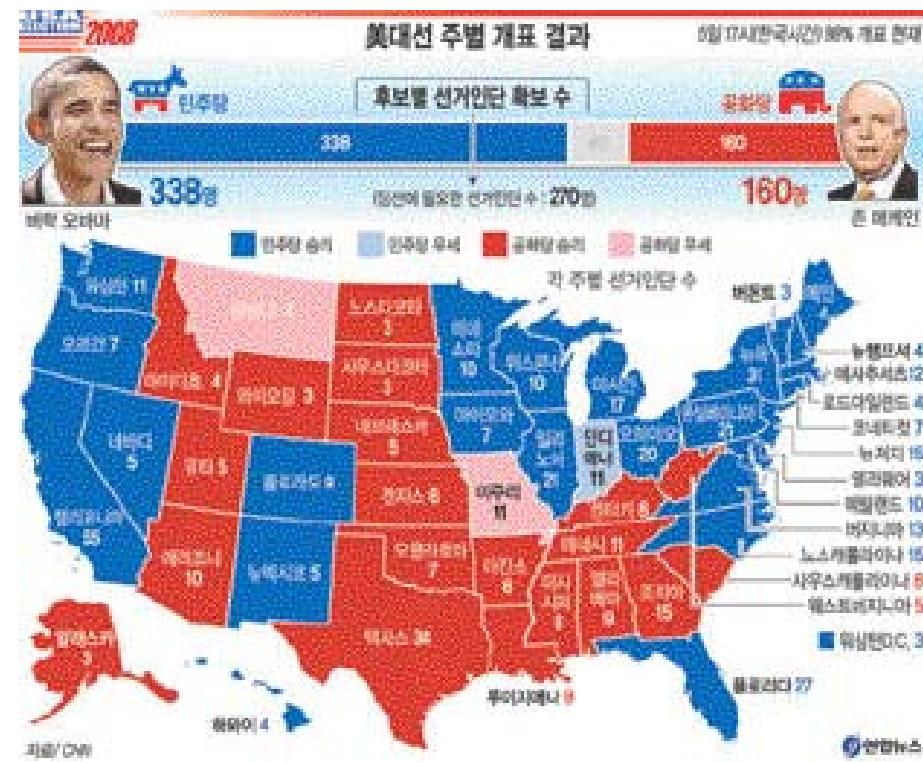


부시 실정·경제 위기 속 '변화와 희망'의 혁명



■ 오바마 당선 배경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외부의 우호적인 환경이 결합된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단 외부환경은 절묘히 만큼 민주당에 유리했다.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국론이 분열되고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

오바마는 이런 국민적 욕구에 화답한 후보였다. 그가 대권출사표를 던지면서 내건 메시지는 '희망(hope)'과 '변화(change)'였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곰어터진 월가발(發) 경제위기는 희망과 변화의 기워드를 유권자들의 뇌리에 더욱 깊게 각인시켰다.

◇부시의 실정, 오바마에 대한 기대=통상 대선이 과거 정권의 심판과 미래 정권에 기대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은 분명 이런 교과서적 의미에 끌어들여 맞는다.

오바마 당선의 '일등공신'이 부시라는 역설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부시 집권 8년이 드리운 그림자가 결국 오바마라는 변화를 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부시는 대량살상무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문없는' 이라크전쟁을 감행, 미국 내부의 국론분열과 국제사회에서의 지

인터넷 활약 310만 개미 후원자 결정적 기여

선거 막판 터진 '월가 위기' 최대 호재로

도역 상실, 경제난 초래라는 트리를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이 같은 부(負)의 유산은 결국 존 매케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 반면, 오바마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됐음을 물론이다.

40대 초선 상원의원 출신인 오바마가 일련한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일방통행식 워싱턴 정치와 탐욕한 월가를 극복하고 변화를 가져올 적임자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공황 아래 최악의 경제위기=“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문제는 종반 대선의 모든 주제를 빨아들이다시피한 최대화두였다.

경제위기는 오바마에게 결정적인 뒷심을 보태줬다. 9월초 공화당 전당대회 직후 여론 조사 지지율에서 역전을 허용했던 오바마는 9월 중순 경제위기가 터진 후 실시된 170여 차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번도 데메인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매케인이 선거운동 중단과 제1차 TV토론회 연기라는 배수진을 치고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실정 =부시·매케인 공동책임’이라는 구조에 갇혀 밭을 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틀을 비집고 오바마는 경제희생을 위한 7천억달러 구제금융에 대국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세론을 굳힐 수 있었다.

◇지상전과 공중전의 국대화=미 동부전선의 격전지 중 한 곳인 버지니아주의 비엔나 전철역 앞. 이곳에서는 선거 직전까지 항상 오바마 진영 선거운동원들이 진을 치고 전철 이용객들을 상대로 후보등록과 오바마 지지자를 호소했다.

지난 1964년 대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미음을 열어주지 않았던 버지니아 공략작전은 이렇듯 ‘낮은데로 임한’ 오바마의 선거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내 경선에서는 대의원이, 본선에서는



선거인단이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바마는 일찌감치 간파하고 선거운동원들을 대거 투입해 밀바닥부터 표심을 다지는 ‘지상전’에 치중한 것이다.

오바마는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개민군단이 십시일반으로 거주하는 선거인단 지도를 보면 연안과 내륙지역의 대선후보 지지성향이 확연하게 간다.

오바마는 동부와 서부의 연안에 과랑색 (민주당 대표색) 깃발을 끊으며 대세를 장악한 반면 매케인은 지리적으로 중원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선거인단이 많이 몰려있는 연안지역 공략에 실패, 대권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대선레이스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민주와 공화 양당이 네거티브 공세에 의존, 국론 분열의 양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 그늘도

남성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워싱턴 정치에서 들러리이기 거부하고 대선가도를 폭풍처럼 질주했던 힐러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여성정치인 가운데 대권에 가장 극접한 인물이다.

◇무관심 정치서 '참여정치'=오바마-힐러리 흥행카드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위기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이었던 미국인들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모았다.

이번 대선의 등록유권자는 1억8천400만 명. 4년전 대선의 1억4천300만명과 비교해 무려 28%가 늘어난 수치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대선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욕구가 그만금 커졌음을 반증한다. 유권자로 등록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뜻이다.

대선레이스가 달궈지면서 접전2기의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놨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존재감은 왜소화하기 시작했으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급속히 대선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맞춰졌다.

232년만에 인종문제 극복…참여정치 시대 개막

■ 美 대선 뭘 남겼나

장장 22개월간 진행된 미 대선은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기념비적인 정치적 사건을 남긴 채 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이 남긴 가장 큰 울림은 40대의 흑인 상원의원(초선) 버락 오바마가 슈퍼파워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등극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공화당 새리 페일린 부통령후보(알래스카 주지사)로 상장되는 여성 정치인들의 맹활약이다.

그러나 2년에 가까운 오랜 대선경쟁에서 기인한 고비용 정치구조, 현직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 등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로 볼 수 있다.

◇인종문제 극복한 흑인대통령 탄생=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은 미합중국이 건국 232년만에 배출한 흑인 대통령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와스프(WASP·영

힐러리 등 여성 정치인 맹활약 돋보여

현직 대통령 조기 레임덕 현상 그늘도

글로 색슨계 백인 개신교자)가 주류사회를 형성하며 이끌어온 미국사회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불과 50년 전만해도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격리와 시민권 제한이 당연시됐던 점을 생각하면 미국 사회는 유색인종 대통령을 최고지도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여성정치인 활약=“나는 유리천장에 1천800만개의 금을 가게 만들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천800만표를 득표하고 도석쾌한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 정치인에게 가로놓여있는 높은 벽을 깨부수지는 못 했지만 미래의 여성정치인들이 손쉽게 벽을 허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대선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욕구가 그만금 커졌음을 반증한다. 유권자로 등록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뜻이다.



오바마 만세

바락 오바마의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각) 미 시카고의 그랜트 공원 지역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승리를 예측하는 방송보도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SJ 투어몰 제주 여행 패키지 및 자유여행

제주 패키지: 219,000원 (3박4일), 199,000원 (3박4일)

자유여행: 245,000원 (3박4일), 119,000원 (3박4일)

여행: 599,000원 (3박4일), 11월 대박 패키지 520,000원 (3박4일)